

자동차를 안방극장으로... SKT, 美 방송진출 신호탄

SKT 5G-ATSC3.0 기반 솔루션
싱클레어 방송, 하만 전장과 협업
하반기 美 방송국 32곳에 선구축
2.7억 美 자동차 시장 공략 박차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달리는 차량에서 풀고화질(HD) 화질의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인카(In-Car)' 미디어 시대가 왔다. SK텔레콤의 차세대 통신(5G) 방송 기술을 통해서다.

이날 시연한 차세대 방송 시연을 디딤돌 삼아 SK텔레콤은 미국 방송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며, 종합 정보통신 기술(ICT) 회사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시연은 올해 1월 열린 'CES 2019'에서 맺은 협약이 기점이 돼 이뤄졌다. SK텔레콤은 이 행사에서 미국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전장기업 하만과 협약을 맺고 2억7000만 미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바 있다.

싱클레어는 미국 내 89개 권역에서 191개 방송국을 운영하는 최대 지상파다. 시장 영향력을 기반으로 ATSC3.0 기술을 표준화했고, 올해 FSN을 약 106억 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인수해 MLB 등 42개팀의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종민 SK텔레콤 테크노노베이션 그룹장이 세계 최초 5G-ATSC3.0 기반 차세대 방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협약 이후 싱클레어와 합작회사(JV)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미국 방송국에 5G-ATSC3.0 기반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내 모든 방송국(1000여개)이 향후 10년간 ATSC3.0으로 모두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타 방송사보다도 사업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장은 2020년 2700억달러로 커져 자동차가 새 미디어 디바이스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한국과 달리 이동



5G-ATSC3.0 기반 멀티뷰 서비스 화면. 가장 큰 화면에서 메인 중계 화면이 나오며 여러 분할 화면에서 다양한 앵글의 영상과 정보들이 구현되고 있다. /SK텔레콤

형 방송(DMB)이 상용화 되지 않아 집 밖에서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고 지상파 방송을 봐야 한다. 때문에 이 기술 활성화 되면 미국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SK텔레콤이 시연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미국 운전자들은 앞으로 통신이 잘 안되는 지역에서도 통신망 대비 저렴한 비용을 내거나 데이터 과금 없이 최신 맵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에 활용된 기술을 이용하면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고 시청자 편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차 안에서도 가능해질 SK텔레

콤의 멀티뷰 기술은 현재 게임, OTT 서비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싱클레어와 5G 핵심 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과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NBMP)'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후 이 기술들이 적용되면 초저지연 가상·증강현실(VR·AR) 영상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시연을 통해 미국 ATSC3.0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싱클레어가 보유한 방송국 191곳에 ATSC3.0 기반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까지 32곳에 선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차세대미디어 전송기술(MMT)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MMT란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제품에 활용되는 고품질 영상 전송 기술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의 '모바일 MMT 분과'에서 쟁쟁한 글로벌 이통사, 미디어 기업들을 이끄는 의장직도 수행했다. 2016년에는 모바일 MMT 기술을 '옥수수(oksusu)' 실시간 채널에 적용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기술을 토대로 과거 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주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삼아 5G-ATSC3.0 기반 미래 융합 방송서비스 개발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비통신 사업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미디어 시장 공략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OTT '옥수수'와 '폭'을 통합하는 등 차세대 미디어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쌍용차, 소형SUV '베리 뉴 티볼리' 출시

1.5l 터보 가솔린 엔진 첫 적용
차체 색상도 5개서 7개로 늘려
4가지 트림 1678만~2535만원

'SUV 명가' 쌍용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볼리의 페이스 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소형 SUV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쌍용차는 올해 초부터 렉스턴스포츠 칸, 코란도에 이어 신형 티볼리 등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고삐를 쥘다.

쌍용차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베리 뉴 티볼리(Very New TIVOLI)'를 공식 출시했다. 베리 뉴 티볼리는 2015년 처음 출시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쌍용차는 2015년 당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절치부심해 만든 티볼리를 처음 선보인 장소에서 베리 뉴 티볼리를 공개하면서 신차급 활약을 기대했다.

쌍용차의 티볼리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가 출시된 2015년 3만2000대에서 지난해 15만3000대까지 5배 가까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석우 쌍용차 마케팅팀장은 "티볼리 출시 이후 소형 SUV 라인업을 보유했던 경쟁사들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며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을 키운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베리 뉴 티볼리는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엔진 출력을 증대시켰다. 쌍용차가 베리 뉴 티볼리에 처음 적용한 '1.5리터 터보 가솔린



모델 문가비가 쌍용차 '베리 뉴 티볼리'를 소개하고 있다.

엔진'은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3.0kg·m으로 크게 향상했다. 가솔린과 디젤 두 엔진 모두 아이신(AISIN AW)사의 GEN3(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한다.

외관은 풀 LED 헤드램프를 전후면에 모두 새롭게 적용해 SUV 특유의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내관은 대시보드 중앙 센터페시아를 태블릿 타입으로 변경해 신차수준의 변화를 이끌었다.

또 차체 색상은 기존 5개에서 신규로 플래티넘 그레이와 체리레드를 추가해 7개로 늘렸다. 좌석 색상도 버건디 투톤을 추가해 3개로 늘렸다. 휠도 18인치 다이아몬드커팅휠을 적용하고 18인치 티블랙휠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조용 접착제를 적용하고 차체 패널의 강성을 증대해 실내로 유입하는 노면소음을 최소화했다. 동급 최다 13가지 안전사양도 탑재했다.

'가성비'는 베리 뉴 티볼리의 최대 강점이다.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총 4가지 V1·V3·V5·V7 트림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은 1678만~2355만원이며, 디젤 모델은 2055만원~253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6개 중소·벤처와 '5G 신사업' 개척

비즈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통해
페타바이코리아 등 6개 기업 선정
연구개발 등 최대 5000만원 지원

KT는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비즈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결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페타바이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비즈콜라보레이션'은 중소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KT와 협업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내 부서와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50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경준 센터장(왼쪽부터), 코아소프트 이정훈 대표, 페타바이코리아 박현규 대표, 애프터레인 이윤희 대표, 오아시스VR 신준우 대표, 굳브로 진성규 대표, 에이테크 김정환 대표, KT SCM전략실장 박종열 상무가 '비즈콜라보레이션 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만원을 지원받는다.

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보육기업과 추천기업, 홈페이지에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부서와 공동사업연계 아이디어 검증을 해 페타바이코리아, 오아시스VR, 코아

소프트, 에이테크, 굳브로, 애프터레인 등 6개 기업을 선발했다.

KT는 연내 협업 영역을 블록체인, 커넥티드카 등 핵심 기술로 확대해 추가로 10개 내외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S전선, 국내 최초 전력망 운영 컨설팅 사업 실시

선로 이상 여부 감시, 해결책 제시
빅데이터 활용해 정밀 서비스 제공

LS전선은 4일 국내외 전력청과 플랜트 대상 '전력망 운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진하는 서비스는 전력 계통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며, 발전소와 변전소 및 변전소간 송전 선로와 플랜트 전력망 이상 여부를 감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선로 이상 방전을 감시



LS전선은 전력망 운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LS전선

해 사고를 방지하는 부분 방전 진단, 케이블 온도를 점검해 화재를 막는 과열 진

단, 외부 충격을 감지해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외산/진동 진단으로 구성된다.

LS전선은 앞으로 산업별 전력 사용 패턴과 전력망 설치 환경에 따른 케이블 내구 연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좀 더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력망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핵심 인프라"라며 "국내외 전력청과 대규모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juk@